

전북대, 3년째 거점국립대 2위 위상

5개 지표 모두 국내 종합대학 10위권 이내... 대학 브랜드 가치 상승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학평가 중 하나인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이하 THE)이 7일 발표한 '2018년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거점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경북대, 전남대와 거점국립대 공동 2위를 기록한 바 있는 전북대는 올해 평가에선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거점국립대를 제치며 단독 2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이 평가에서 2016년부터 3년 연속 거점국립대 2위에 오르고 있고, QS 평가, 라이덴평가 등에서도 줄곧 거점국립대 1~2위, 국내 종합대학 10위권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THE 아시

아대학평가는 아시아 35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25%, 연구 30%, 논문 피인용 30%, 국제화 7.5%, 산학협력 실적 7.5%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5개 지표에서 모두 국내 종합대학 중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체 순위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북지역보다 경제 수준이나 도세가 강한 경북과 충청, 전남 등의 거점국립대들을 모두 제치며 거점국립대 최고의 위상을 이어갔다.

전북대가 수년째 공신력 있는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와 교수들의 열정으로 파생되는 좋은 연구 결과물 등이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북대는 ACE사업을 비롯해 CK사업, LINC사업, CORE사업 등 정부가 교육여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굵직한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돼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 비율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학생 1인당 1,635만 원의 교육비를 투자해 거점국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가 많은 대학으로 손꼽혔다. 이는 전국 185개 국·공·사립대 평균 1,485만 원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다.

또한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생활관을 전인·전일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시킨 '디지털칼리지'와 졸업까지 한 학기 이상 타 지역이나 국가에서 언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캠퍼스'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만족감을 크

게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와 2015년, 2012년 등 3번이나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재학생 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이남호 총장 취임 이후 △색깔 있는 모험인재 양성, △월드 클래스 학문 분야 육성, △가장 값고 싶은 캠퍼스 들레길 조성,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구축 등 이른바 '4대 브랜드'를 설정, 적극 육성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도 지속적인 높은 평가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남호 총장은 "대학이 수년째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데에는 구성원들의 열정과 지역민들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다"며 "우리대학만이 갖고 있고, 잘할 수 있으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브랜드화 해 가치를 높여간다면 대학의 외형적 성장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도교육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과후학교 보조 인력 등 27개 직종 830명 확정

전북도교육청이 830명의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 정책 기조를 같이하고 기간제 근무로 고용불안을 호소해 온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등 총 27개 직종의 830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직종별 업무특성과 정규직 전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전환 심의 대상 직종과 인원은 총 46개 직종 3546명이며,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결정된 직종은 27개 직종 830명으로 무기계약 전환율은 23.4%에 이른다.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과 더불어 도교육청은 그간 논란이 된 돌봄교양사업을 전북형 돌봄사업 체계로 방향을 전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 제의자로 결정된 기간제교사 등에 대해서는 처우 등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호남 입학사정관 협의회

대입전형 운영사례 공유

호남지역입학사정관협의회(회장 노성)가 컨퍼런스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과 관련된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대입전형 변화에 따른 대입전형 운영 사례 공유' 컨퍼런스에는 전북대와 전남대, 원광대 등 호남지역 주요 대학 입학관계자 및 고교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개편과 대입제도 방향에 대해 장광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위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호남지역 주요 대학들의 대입전형 사례 발표 및 토론 등이 이어졌다.

노성 호남지역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호남지역 고교-대학연계 강화는 물론 대입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입전형 사례 등을 고교와 대학 또는 각 대학 간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대입전형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The 좋은 일자리위원회 출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The 좋은 일자리위원회'를 7일 출범시킨 후 박명식(중앙) LX 사장과 여성·지역일자리, 노동 분야 전문가, 경영·행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기업투자 유치로 창업지원 날개달아

전북대, 페이스메이커스에 2억원 투자육성

전라북도 창업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기업으로부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을 지원받아 창업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주)페이스메이커스가 2월 6일 기업

업 기업 발굴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창업기업 육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대 관대규 창업지원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우수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우리 지역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력과 투자를 지원해준 (주)페이스메이커스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창업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더 좋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도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안내

학교운영위, 심의과정 의견수렴절차대상 구체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구체화, 확대됐다. 7일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과 학칙 제개정 ▲교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부담사항 ▲방과후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 지원비 조성과 사용 ▲학교 급식 등을 심의할 때는 학부모 의견 수렴과

정을 거쳐야 한다. 종래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조항도 명확히 했다. ▲학칙 제개정 ▲방과후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기타 학교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종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명시했었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번한국)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01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안전 지원사업	5,733,677,999

참여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